

GOLF COMMUNITY

Green River Golf Club

GREEN RIVER GOLF CLUB: FROM 36 TO 18

그린 리버 골프 클럽: 36 홀에서 18 홀로

Green River Golf Club established in 1958 in Corona California has been a 36 hole golf course for over 40 years. The banks of

is proceeding at full speed, Green River Golf Club's new 18 hole layout has been received with rave reviews. Mark Gibbs of Tustin says,

"Having played here for many years, I was sad to see nature (river) take control, but very pleasantly surprised with the overall experience. I look forward to many more rounds at Green River". James Thomas commented, "My playing compan-

the scenic Santa Ana River that runs along and through the golf course have eroded over the years and presents a threat to down stream communities should the newly raised Prado Dam release floodwaters. The Army Corp of Engineers is constructing flood protection improvements all along the Santa Ana River which impacts Green River Golf Club and has resulted in the transition from 36 to 18 holes.

Although the Army Corp of Engineers flood protection construction project

ion and I both agreed that you chose the 'best of both sides' in creating the new course. The course was in great shape - it played well".

Change is always difficult but Green River Golf Club wears it well. The new layout incorporates twelve holes from its old Riverside Course and six holes from the old Orange Course. This temporary 18 hole layout will be in use throughout construction which is anticipated to last 1.5 years. The course is 6635 yards from the blue tees, par 71.6/123

slope, which is 200 yards longer than the previous course.

The construction is quite extensive and can be viewed from the 91 freeway. Surprisingly, once you enter the property and arrive at the clubhouse you don't even notice the construction. Stop in and see what's going on.

In 1958 캘리포니아 코로니에 지어진 그린 리버 골프 클럽은 40년 넘게 36 홀 골프 코스였다. 골프 코스를 통과하는 아름다운 산타아나 강의 제방이 오랫동안 침식되어 온 탓에 새로 건설된 프라도 댐이 넘치는 물을 방류할 경우 하류에 있는 커뮤니티에 위협이 되고 있다. 미 공병단은 산타아나 강 전역에서 홍수 방지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린 리버 골프 클럽에 영향을 주어 36 홀에서 18 홀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미 공병단의 홍수방지공사 프로젝트가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와중에 그린 리버 골프 클럽의 새 18 홀 레이아웃은 격찬을 받아 왔다. 터스틴에 사는 마크 깁스는 "수 년 간 이곳에서 경기하면서 자연(강)이 제어하는 것을 느껴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유쾌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린 리버에서 라운드를 더

많이 하고 싶네요." 라고 말했다. 제임스 토마스는 "저와 같이 경기한 동료와 저는 새 코스가 지어지면서 '양측 모두에게 최선' 이 되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코스는 형태가 훌륭합니다. 경기 하기가 아주 좋아요." 라고 평했다.

변화는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린 리버 골프 클럽은 변화를 잘 해냈다. 새로운 레이아웃은 기존의 리버사이드 코스로부터 12개 홀과 기존의 오렌지 코스로부터 6개 홀을 따왔다. 임시 18 홀 레이아웃은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기간 동안 내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코스는 블루 티에서 6,635 야드, 파 71.6/123 슬로프로서, 예전 코스보다 200 야드가 더 길다.

공사는 꽤 광범위해서 91번 프리웨이에서도 보인다. 놀랍게도 일단 클럽에 들어서서 클럽하우스에 도착하고 나면 공사 중이라는 것을 느낄 수조차 없다. 한 번 와서 둘러보길 바란다.

